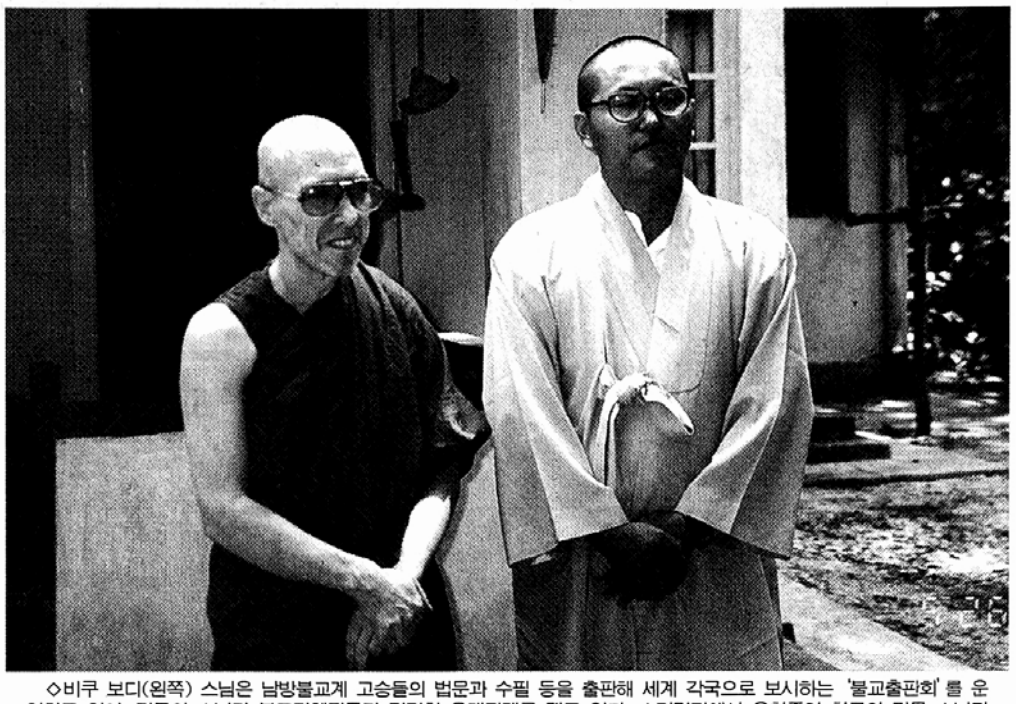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주의이지요. 우리 모두가 '나' 또는 '자아'라는 관념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이기적이 되며, 또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욕망, 좋다 싫다 하는 감정도 더욱 세차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욕망의 밧줄이 강해지면, 밧줄 그 자체는 더욱 짧아지고 그와 비례해서 인간의 행동의 자유도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한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단단하고 짧은 밧줄에 묶여 질식하고 있는 동물과 같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밧줄의 성질이 그와 같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지면 밧줄 그 자체도 약해질 뿐 아니라 길게 늘어나서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더욱 넓은 행동의 자유를 부여해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질 때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과 연민이 생겨나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한 말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기중심적 성향, 부정적 감정, 무지 라는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어 완전하고도 무제한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비쿠 보디(왼쪽) 스님은 남방불교계 고승들의 법문과 수필 등을 출판해 세계 각국으로 보시하는 '불교출판회'를 운영하고 있어, 각국의 스님과 불교단체장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유학중인 한국의 각묵 스님과 함께 한 비쿠 보디 스님.

자기 마음의 통치자가 되세요

부처님 법 실천만이 완전자유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든 비유로서 설명하자면 동물을 묶은 밧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기둥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기에는 너무나 혼탁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방일과 습으로 인해 삶의 방식을 바꾸질 못합니다. 삶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짧은 한 생애에서 잘못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잔인한 발상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또 형식적인 회개 행위나 사람이 지어낸 그 허다한 신 중 하필 어떤 특정한 신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씻게 된다는 따위의 불공평한 교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심판자도 없습니다. 단지 인과법칙만이 있을 뿐이지요.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어떤 심판자도 심판을 하다 보면 공정성과 자비로움 중 하나는 어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냉혹하리만치 공정하다면 자비롭다고 할 수 없게 되며 또 죄인에게 자비롭다 보면 철저히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성질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배우면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비할 데 없이 공정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모르는 것 또한 고통과 무명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의 대상을 즐기는 탓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척도로 상황을 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기 본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갖가지 컴플렉스 증세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을 '마라(악마·Maara)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감각기능들이 제어되지 못했을 때 마음은 타락하게 되고, 감각대상을 즐기는 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줄, 보다 고상한 추구노력에 담긴 기쁨 즉 빠못자(paamojja)를 찾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즐거움인 빠아못자가 없을 때 종교적인 경건한 즐거움도 없게 되고, 이 경건한 즐거움이 없을 때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쉴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긴장과 좌절과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감각기능의 매개에 의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세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에 든 모든 얘기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감각기관에 지배당한 탓으로 윤회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각기관에 대해 고삐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됩니다. 허용해주면 그 정도만큼 굴레와 괴로움도 커질 것이다.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을 원한다면 이 감각기관들을 복속시켜 우리의 하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업에 의해 세계는 존재하고 업에 의해 인간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좀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세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래의 고유한 힘을 다시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둔탁하게 만든 욕망에서 벗어나, 최초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빛을 찾아야 해요.

—결국 탐·진·치 삼독을 끊고 본연의 '마음자리' 찾기가 해결의 열쇠이겠지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삼독이 잠재된 형태로도 남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확고 부동한 주인의 자리를,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앉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 마음의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안에 그 무엇도 그의 청정한 마음의 해탈심을 앗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들과 어울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세속의 영고성쇠를 떠나 완전한 평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설혹 유쾌한 대상이 인식 범위 내에 들어와도 그는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고통스런 대상이 들어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양쪽을 모두 그는 평온에 관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주시할 뿐이지요. 이끌리고 배척하기의 순환 노름을 그 기반에서부터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금 한 덩어리나 흙 한덩어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오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 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번뇌가 근절되면서 어떤 슬픔도 비애도 그의 마음에 범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탐욕이라곤 흔적도 없는 순전한 법열만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에서 벗어났으며, 마음을 얽어묶는 저 열정이라는 발열성의 성가신 병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병에서도 벗어나 번뇌, 업지음, 과보받음의 악순환도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무시 이래로 반복되어 온 생사의 기나긴 행렬을 끝맺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몸을 받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고요하고도 확실한 지혜로 자각하는 가운데, 무량한 자비심을 발해 전 세계를 덮으며, 해탈의 참맛을 즐기며,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에게 자기가 답파한 길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평화로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감각기관에 지배당한 탓으로 윤회의 쳇바퀴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부처님의 자유를 생생한 경험으로 실현해 낸 사람만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치면 어떤 음식이든 짠맛을 내듯, 자유의 맛도 부처님께서 펴신 법과 율의 처음 중간 마지막을 가릴 것 없이 전 범위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법을 닦든 간에 그 정도만큼은 자유의 맛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진정한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곧 마음의 내면적 자율은 온총으로 내려지는 하사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장 스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비법은 타고나는 것일까. 하여간 스님과 함께 있다보면 배꼽이 빠져서 달아날 지경이다. 승가에 몸을 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서로 어울려 지낸 것 같다. 현장(玄藏) 스님과는 늘 그렇게 지낸 편이다.

강원 도반, 〈해인〉지 창간 당시 편집일, 〈불일회보〉 편집 일 등을 함께 해오면서 대체로 손발이 잘 맞는 편이었다.

〈해인(海印)〉지를 창간할 당시에는 아무도 칼러로 내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야 중고등부 학생회 지도법사로 현장 스님이 나갔다가 뜻밖에 일을 저질렀다. 그때 나는 회계 일을 보고 있었는데 홀연 내 거처로 뛰어들어,

"이번에는 〈해인〉지가 칼러로 나와요. 경비는 한 80만원 정도 들고요."

한다. 나는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아니? 뭐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10만원 미만인 사중 보조로 학생회가 지탱해 나가는데 80만원이라니!

집착않고 떠나지도 않고 오래 사귄 막역한 도반

"다 수가 있지요."

현장 스님이 하도 여유 만만하기에 다소 안심은 되었다.

"수는 무슨 수요?"

"아, 장경각에서 한 부에 100원씩 보급하면 돼요. 참배객들이 좋아라고 할 것이니 두고 보시요."

의외로 간단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하루 이틀만에 품절이 되고 〈해인〉지는 날개가 돋힌 듯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첫 장에는 '가야산의 메아리'를 싣는다. 이 원고가 들어오는 백련암에서는 원고료를 받는 대신 게재료조로 금일봉이 들어왔다. 지족암 일타 큰스님께서도 매월 게재료조로 금일봉을 하사 하셨다.

"누가 이렇게 잘 내냐?"

백련암에 원고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성철 큰스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큰스님의 법문이 한글로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는 길이 〈해인〉지를 통해서 열렸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때까지는 성철 큰스님의 법문이 그렇게 쉽게 한글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해인〉지 뒷면은 칼러판 벽화 이야기. 해인사 벽화를 소재로 〈전등록〉 등에서 전거를 모아 노트 한 권에 정리한 걸 다시 쉽게 풀어서 연재하였다. 말사 주지 스님네가 내 노트를 하도 많이 복사해 가서 노트가 닳았다. 내가 처음 정리한 노트는 한문투였으나 〈해인〉지 편집위원으로 나 외에 홍제암의 종묵(宗默) 스님과 직지사의 홍선(興善) 스님 등이 명문장으로 시원스레 실었다. 특히 이 두 스님은 탁월한 문재(文才)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누가 이런 명문장을 썼어요?"

독자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때가 불교계 최초의 칼러판 회보가 나와 관심을 모은 때였는데 밤새 원고 정리를 하고 낮에는 왜관에 있는 분도출판사를 다녀와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베네딕도 수도회 수사들과 친해진 것도 이 〈해인〉지 편집일 때문이었다. 그때에 대구 시내에서 고급 칼러 인쇄로 분도출판사를 따라가는 데가 없었다.

매달 〈해인〉지 발송작업 때문에 강원 울력이 있었다. 스님들이 하나같이 좋아해서 신바람이 일었다. 그 때 큰방 가운데에 잉크냄새가 나는 〈해인〉지를 산더미같이 풀어놓고 〈해인〉지의 반을 꼭꼭 접어 띠를 두르고 풀을 붙이는 발송작업에 동참했던 도반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 한번 만나 보고 싶다.

지금은 내가 있는 송광사와 현장스님이 계시는 대원사가 지척간에 있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차를 마시러 다니는 편

그림·문병성

이다. 오래 사귄 도반은 장 단점조차 잊는 것일까. 누가 단점을 말해도 흥흥, 장점을 말해도 흥흥 그렇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 별다른 감상이 일지 않는다.

현장스님이 길상사 주지를 단 하루 한 일에 대해 말해야 겠다.

성북동 골짜기에 길상사가 들어서서 현장 스님이 주지로 추대되었을 때였다. 그 때 현장 스님은 회주 법정 스님의 부탁에 못 이겨 주지 승낙을 하였으나 하루를 지나 곧 사임하고 말았다.

창건주 김영한 보살 역시 의아해서,

"스님들은 밥상을 잘 차려 올려도 수저를 잡지 못해요." 하고 평하였다.

대원사에 가서 현장 스님과 같이 앉아서 주지 사임한 내력을 듣는 자리에서였다.

"현장 일일 체험"

앞 뒤 없이 이렇게 말해서 나도 따라 크게 웃고 말았다. TV 프로에서 인기 연예인의 '현장 일일 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불착(不着) 현장 불리(不離) 현장'

현장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장을 떠나지도 않는다. 현장 스님은 사실 그렇게 살고 계신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알 림

전국 신도회 회원 여러분의 건성을 삼보전에 기원드리며 본회의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하여 드립니다.

—아 래—

1. 수련대회 및 대의원대회

매년 실시하던 하계수련대회와 대의원대회를 금년에는 가을이 무르익는 문화의 달 10월 28일 ~ 29일(1박 2일) 본회 수련도량인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연기하였습니다.

2. 본회 사무실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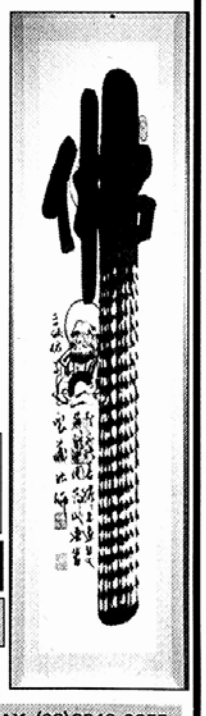
그간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에 자리잡고 있던 중앙회 사무실을 7월 20일을 기하여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112호, 413호로 이전하였습니다.

☎02)732-7272 ~ 5
720-9363 ~ 4

불기 2544년 7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회 장 선 진 규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七三七 - 八八一